

# 최고의 삼성건설에는 최고의 안전이 있다

## 삼성건설 잠실 4 재건축아파트 현장

초여름에 접어든 초록의 계절!

그들의 행보에 국내 건설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내 건설안전에 새로운 안전문화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기업, 삼성건설이다.

오늘 찾은 곳은 그 중 서울 지역 최초 대단위 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잠실에 국내 최고하고 자부하는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하듯 보이지 않은 전쟁이 한창인 잠실4 재건축아파트 현장이다.

최고의 브랜드 “레미안”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프로정신으로 새로운 안전문화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곳을 찾았다.



### 오늘의 안전은 재해 입은 옛 근로자를 위한 보답 ■■■

30년 국내외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김준호 소장을 필두로 최고를 자랑하는 기술자들 최고의 현장을 만드는 이곳에 “최고의 안전”은 빼 놓을 수가 없다.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건설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는 잠실 4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OSH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을 보았다.

국내 첨단제조업에서나 볼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은 아마도 삼성건설이 처음일 것이다.

2004년부터 시행한 OSHMS는 모든 작업에 있어 계획되고 이행되며, 이를 확인하여 개선하는 사이클로 이어지는데, 삼성건설내 협력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제외는 없다. 그러하기에 그만큼 처음에는 마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삼성건설은 새로운 안전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준호 소장은 “새로운 것을 받아드림에 있어 어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



▲ 김 준 호 소장

이기에 반드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로 쓰러졌던 옛 근로자를 위한 작은 보답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렵고 힘든 과정 뒤에는 분명 더 나은 것이 있음을 믿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간다.

### 협력사가 주체가 되는 안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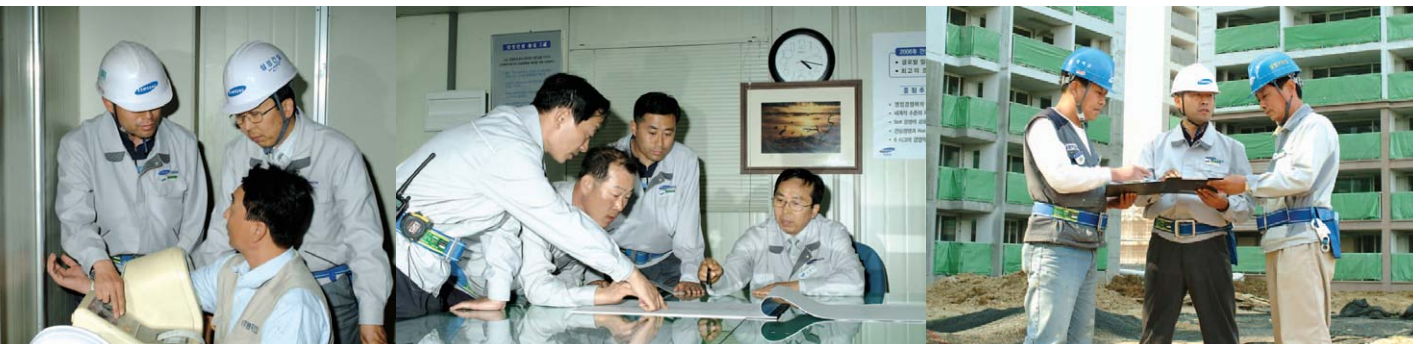
건설현장의 안전은 시공사의 의지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 협력사가 주체가 되어 안전활동이 추진되고, 이행될 때 현장의 무재해는 찾아온다.

삼성건설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 안전실적에 따른 협력사 소장의 안전마일리지제도와 포상제도, 이는 협력사의 무재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에 따라 점수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안전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협력소장에게 삼성건설 본사가 심사하여 선정하는 “기능장” 승격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기능장은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이 부여되며, 현장을 안전한 고품질 현장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

잠실 4 재건축아파트 현장은 5명의 기능장이 있다. 전국 삼성건설 현장 중 가장 많은 기능장을 보유한 현장이다. 그 중 선주토건 신세영 소장은 삼성건설에서 믿고 인정해 주고, 직권적으로 관리 권한을 줌에 따라, 일할맛이 나고, 현장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내가 주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당연히 자율적인 안전은 기본이며, 더 나은 현장을 만들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것이 현장에서 표출될 때 커다란 공지를 갖게 되고 소속감도 갖게 되다고 한다. 삼성건설은 협력사가 주체가 되어 무재해를 건설하도록 제도적, 환경적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다.

### 무재해는 사랑하는 마음 ■■■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이 있는 것





입니다.” 이는 김준호 소장이 말하는 안전이다.


안전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법적 안전관리비르 20% 상회하여 사용될 만큼 충분하나 늘 부족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이며, 의식이다.

이를 높이기 위해 삼성건설에서는 “Safety Love! 2006”과 “품안이 사랑”이 있다. 먼저인사며, 근로자 자신을 “기술자”로서 존중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에서 무재해의 결실을 얻는다.

## 맺음말 ■■■

안전사고는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족이 불행해지고, 회사와 국가에 까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회사와 국가의 손실은 비용으로 산정되나 가족의 불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산정될 수 없으며, 회복하기 힘든 커다란 고통만이 찾아 온다.

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삼성건설은 최고의 안전을 실천하고 추진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마음은, 분명 최고의 기업에서 느낄 수 있는 기운이다. 잠실 4 재건축아파트 현장을 필두로 삼성건설 전현장 재해율 Zero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최종덕 기자〉